광주시의원 절반 내년 자치단체장 도전장

지방선거 9~10명 출마 의지…시의원 대폭 물갈이 예상

북구청장·광산구청장 도전자 많아 경쟁 치열 전망

광주시의원 22명 가운데 절반 가량이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에 도전장을 낼 것으로 보여 시의회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

15일 광주시의회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비례 대표 3명을 제외한 19명의 광주시의원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에 출마를 준비하거나 고민중인 인사는 9~10명에 이른다.

재선 이상의 의원들은 대부분 지역구 기초단체장에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고, 초선 의원 일부도 지역구 단체장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직 구청장이 '3선 아웃'되는 북구에는 4명의 시의원이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이면서 벌써부터 이들 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재선의 문상필(두암1·2·3동, 풍향·문화·석곡동)·조오섭(우산동, 문흥1·2동) 의원과 초선의 김동찬(동림동, 운암1·2·3동) 의원이 북구청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문상필·조오섭 의원 지역구는 국회의원 선거구로는 북구갑에 해당되고, 김동찬 의원의 지역구는 북구을이다. 이들이 당내 경선에 나설 경우 불꽃 튀는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에서는 이은방(삼각·일곡·건국·양산동) 시의회 의장이 북구청장에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도 치열하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광주시장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의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현재 재선의 국민의당 김민종(첨단1·2동, 비아동, 신창동) 의원이 구청장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구청장 출마를 결심한 초선의 국민의당 이정현(송정1·2동, 도산·동곡·어룡·평동·본량·삼도동) 의원과의 당내 경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구에서는 민주당 소속의 김보현(광천·유덕·치평·상무1·동천동)·김영남(화정3·4동, 풍암동) 의원이 구청장 출마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민의당에서는 심철의(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 의원도 출마를 고민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구는 민주당의 임택(충장동, 동명동, 계림1·2동, 산수1·2동) 의원이 시의원으로서는 초선이긴 하지만, 동구의회 의원을 역임한데다 동구청장 출마 경험이 있는 만큼 당내 가장 경쟁력이 있는 인물로 꼽히면서 동구청장 출마자로 거론되고 있다.

10여명 가량의 이들 현역 시의원이 단체장 출마로 빠져나가면 내년 선거로 새로 구성될 제8대 광주시의회는 상당수 신진 인사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남아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시의원들이 내년 선거에 그대로 출마한다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어 대대적인 의원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란 게 지역 정가의 전망이다.

광주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4·13총선에서 국민의당이 국회의원을 싹쓸이했지만 이번 5·9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최근 고공행진을 보이는 민주당의 지지율로 봐서 내년 지방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당내경선은 물론 양당 후보간 치열한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 내다봤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본궤도

차량형식 조달구매 이어

실시설계 업체 선정 입찰

그동안 차량형식 결정 등으로 광주시의회 반발에 부딪혔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말 차량형식 결정을 위한 조달구매 의뢰에 이어 최근 실시설계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를 진행했다. 실시설계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는 10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1단계 구간을 모두 3개 공구로 나눠 발주됐다.

2호선은 광주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첨단~수완~시청으로 이어지는 41.9km의 순환선으로 모두 3단계로 나눠 공사가 진행된다.

최종 완공 시점은 2025년이다. 기본설계 기준 예상 소요 사업비는 2조549억원이다.

1단계 실시설계는 17.06km에 서구 유촌동에서 북구 중흥동(광주역)까지며 차량 기지 1곳, 정거장 20곳이 들어선다.

광주시는 이달말까지 설계용역 업체 선정을 마친 뒤 철제와 고무차륜 등 차량형식이 결정되는 7월말부터 본격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설계용역은 도시철도 노선 구간 지하에 매설된 각종 지장물(전기·통신·상하수도 등)조사를 거쳐 도면 작성에 들어간다. 설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용역에 투입될 인력을 최소 2~3배 늘릴 계획이다.

광주시는 설계 용역과 함께 교통영향, 환경영향평가 등도 동시에 착수한다.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1구간 설계를 마친 뒤 상반기 안에 최대 난공사 구간 중 한 곳인 상무지구 한국은행에서 월드컵경기장 구간을 선(先) 착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시설계 뒤 국토부와 최종 사업비 협의 과정이 남아있고, 시의회의 반발도 아직 있는 데다 설계인력을 최대한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 공기(工期) 등을 고려할 때 의도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도시철도 2호선은 1994년 3월 1호선과 함께 기본계획 승인 뒤 예비타당성 검토와 두 차례의 기본계획 변경 등 논란 끝에 저심도(低深度) 방식으로 결정됐다.

민선 6기 윤장현 시장 취임 후 건설 여부 재검토와 건설방식, 차량형식, 입찰방식 논란 등으로 2년 넘게 지연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런던화재 부실 대처에 분노 확산…메이 총리직까지 위협

경찰 "최소 58명 사망"

시민들 연일 시위 잇따라

메이 '3주내 새집' 약속

1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소방대원들이 화재가 발생해 검게 타버린 그렌펠 타워에서 잔불 작업과 함께 시신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영국 런던화재 참사를 둘러싼 분노가 확산하면서 총리직까지 흔들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24층 임대주택 '그렌펠 타워'에서 발생한 화재로 최소 5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이번 화재는 2차대전 이후 런던에서 발생한 최악의 화재 참사로 기록됐다. 특히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소극적인 행보와 더불어 정부의 태도가 무성의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에 항의하는 시위는 물론 보수당 내에서 메이 총리의 거취를 운운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사망자 최소 58명…더 늘어날 듯=런던 경찰은 1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그렌펠타워 화재의 사망자 수가 최소 58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발표한 30명보다 무려 28명 늘어난 수치다.

런던 경찰청의 스튜어트 쿤디 국장은 "실종자 가족들의 보고 등에 근거했을 때 현재까지 추정되는 사망자 수는 58명"이라며 "경찰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건물 내부에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희생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발표했다.

또, 보건 당국에 따르면 화재 현장에서 자력으로 탈출하거나 구조된 뒤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주민 19명 가운데 10명은 상태가 위중해 사망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정부 부실 대처에 번지는 분노=희생자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메이 정부는 시종일관 부실한 대처로 일관해 영국 국민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영국 정부는 화재 발생 후 전면적인 공개조사(대규모 인명피해에 대해 독립된 위원회를 두고 조사하는 제도)만을 약속했을 뿐 화재 원인이나 인명피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

특히 모든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메이 총리가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에 무심한 태도를 보이면서 보수당 정부와 메이 총리를 겨냥한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분노한 수백 명의 런던 시민들이 지난 16일 그렌펠 타워가 위치한 켄싱턴-첼시 구청 앞과 시내 의회, 총리집무실 인근 도로 등에서 거센 시위를 벌였다.

◇메이 총리직까지 위협=정부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비판이 폭주하자 메이 정부는 뒤늦게 지원대책을 내놓으면 사태 수습에 나섰다. 메이 총리는 17일 오후 총리집무실에서 피해자 가족과 생존자, 자원봉사자 등을 만나 면담을 가진 뒤 성명을 통해 사과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또 500만 파운드(약 75억원)의 긴급기금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화재로 집을 잃은 생존자들이 3주 내 인근에 새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곧 공개조사를 시작해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메이 총리의 뒤늦은 노력도 영국 국민과 정치권의 분노를 잠재우기는 역부족이었다. /연합뉴스

전남도 양식장 해파리 피해 예방 총력

수온 평년보다 1.5도 높아

전남도가 최근 연안 수온이 평년의 섭씨 12.5~13.5도보다 0.5~1.5도 높아 해파리 출현양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근해 조업 어선과 양식장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해파리 피해 예방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수 등 11개 시·군에서는 선박 123척, 절단망 121개, 분쇄기 10개 등을 사전 점검했다.

전남도는 국립수산과학원이 해파리 '관심' 경보를 발령하면 곧바로 선제적으로 제거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해파리 발생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발령된다. '관심' 경보는 100㎡당 보름달물해파리는 5마리 이상, 노무라입깃해파리는 1마리 이상 출현할 때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발령한다.

지난해에는 7월 27일 보름달물해파리 '주의' 경보가 전남 전 해역에 발령돼 여수, 고흥, 장흥, 보성, 영광, 신안 6개 시·군 해역에 전액 국비 3억2000만원을 들여 해파리를 3749t을 제거, 어업 피해는 없었다.

올해는 국비 5억2000만원을 확보해 해파리 '주의' 경보 발령 시 해당 시군에 사업비를 긴급 배정해 신속하게 제거작업을 실시, 어업 피해는 물론 해수욕객의 쏘임 사고도 예방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국민은행 신입사원 지역 채용 면접' 접수 조기 마감

전남도가 KB국민은행과 함께 올해 처음 실시한 'KB국민은행 신입사원 지역 채용 현장 면접' 접수가 취업난을 반영하듯 조기 마감됐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7일 전남도청에서 전남지역 현장 맞춤형 인재 발굴을 위한 현장 면접을 실시하기로 하고,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선착순 300명을 접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접수 3일째인 14일 조기에 마감됐다.

현장면접은 27일 오전 10시부터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면접 시작 전후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등을 진행한 후 면접관 한 명이 지원자 5~6명을 동시에 면접하는 방식이다. 한편 이번 현장 면접 지원은 학력, 전공, 연령 제한 없이 전남지역 거주자로서 최종 합격 후 전남지역에서 근무를 희망하면 가능했다.

/윤현석기자chadol@